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③	2.①	3.③	4.①	5.⑤	6.③	7.⑤	8.④	9.④	10.②
11.①	12.②	13.④	14.②	15.④	16.④	17.⑤	18.③	19.⑤	
20.②	21.①	22.①	23.⑤	24.④	25.②	26.②	27.②	28.⑤	
29.①	30.④	31.①	32.①	33.②	34.⑤	35.②	36.③	37.⑤	
38.④	39.④	40.③	41.②	42.①	43.④	44.③	45.④	46.⑤	
47.③	48.②	49.③	50.③	51.③	52.①	53.①	54.④	55.①	
56.⑤	57.④	58.②	59.③	60.③					

[듣기 대본]

[1] 이제 여러분은 텔레비전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그널 음악)
앵커(남) : 못 쓰는 거실 커튼, 해진 청바지, 또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한복 등도 얼마든지 멋진 옷, 소품으로 깜짝 변신이 가능합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 패션쇼 현장으로 이소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기자(여) : 이 옷들은 모두 못쓰는 천들을 재활용해 만든 것들입니다. 못쓰는 거실 커튼이 아이의 예쁜 드레스로 탈바꿈했고, 입지 않는 청바지는 가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묵혀둔 한복 치마가 남성들의 윗도리와 바지로 변신했습니다. 행사에 오신 한 분의 반응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남) : 보기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직접 입어 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부담감이 없고 편해서 평소에도 입을 만한 옷이라 생각해요.
앵커 : 이소영 기자! 옷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기자 : 못 쓰는 옷을 수선해 새로운 옷으로 재활용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새 옷의 십분의 일 정도입니다. 특히 한복과 청바지, 커튼은 재활용하기 쉬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활용 의상 100여 벌이 소개되었습니다.
앵커 : 옷 말고도 일상 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실천하기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이 훌륭한 자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GBS뉴스 이소영입니다.

1. 기자는 옷을 재활용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취지가 잘 드러난 ③이 정답이 된다.

[2]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보연아, 네가 서점엘 다 오고 웬일이니?
여학생 : 보면 모르냐? 책 한 권 샀지.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고3 때 체험을 모은 책인데,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야. 너, 이 책 읽어 봤니?
남학생 : 물론이지. 혹시나 대학 잘 가는 비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읽어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뭘 해? 우리말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여학생 :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말을 쓸 줄 모른다니?
남학생 : 책 이리 줘 봐. (책장 넘기는 소리) 여길 좀 봐. "이 전통은 선배들에 의해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또 여기, "교실 문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 온통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번역투의 표현들이야. 이래도 되는 거야?
여학생 : 아니, 그 문장이 뭐가 잘못 됐는데?
남학생 : '이 전통은 선배들에 의해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전통은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우리말다운 표현이 되는 거야.
여학생 : 그래? 하지만 그런 표현은 흔히 쓰고 있잖아. 뜻만 잘 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남학생 : 뜻만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말다운 표현을 써야지. 정말이지 큰일이야. 잘못된 표현을 써서 우리말을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2. 남학생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은 번역투 표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①에서 '아들을 둘 가지고 있다.'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문장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지적한 잘못에 해당한다.

[3]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에는 발등에 기다란 흠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흠집은 한 조각가의 예술에 대한 절망의 흔적이라고들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조각의 발등을 끌로 긁으며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울부짖었답니다. 차가운 돌에조차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던, 그의 예술적 열정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예술을 위해 쏟은 한 예술가의 이같은 열정과 혼신의 노력이 모세상을 영원한 걸작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예술의 창작에는 이같은 고뇌와 절망, 고통이 따르는 법이죠. 예술 창작을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고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인 양 내세우는 표절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표절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자기가 만든 조각품의 발등을 긁으며,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미켈란젤로.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해 쏟아 붓는 그같은 고뇌와 절망을 잊은 채, 작품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진정한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3. 강사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인 모세상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4] 이번에는 교양 강좌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상의 지혜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해 온 숯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숯을 꽂은 금줄을 칩니다. 장을 담글 때에는 반드시 장독 속에 숯을 띄웠고, 집을 지을 때에는 땅 속에 숯을 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늘 숯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미신이나 그저 전해 내려오는 풍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금줄에 숯을 꽂아 두면 주위에 음이온이 증가하게 되죠. 이 음이온은 병균의 활동을 억제하여 병에 감염되기 쉬운 산모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된장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를 시키려면 미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숯에는 미세한 구멍이 아주 많은데, 이 구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은 살 수 있지만, 덩치가 큰 해로운 미생물은 살 수가 없죠. 발효를 돕는 유익한 미생물의 서식지를 숯이 제공하는 셈이죠.

숯의 효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칠백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비에 가깝다고 할 만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도 바로 숯에 있었던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 밑에는 많은 양의 숯을 묻어 두었습니다. 숯은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경판이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우물을 만들 때도 우물 바닥에 숯을 깔았습니다. 우물에 숯을 깔면 숯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덕분에 물맛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숯에 있는 무수한 구멍이 이물질을 흡착하여 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숯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 강사는 금줄에 꽂은 숯의 경우를 예로 들어 숯이 병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말한 후, 장을 담글 때 장독에 숯을 넣어 유익한 미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발효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경판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된 비결이 숯의 습도 조절 능력에 있음을 언급한 후, 우물을 만들 때 우물 바닥에 숯을 깔면 숯이 이물질을 흡착하여 우물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숯의 냄새 제거 효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6] 이번에는 영화 평론가와의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김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요즘 폭력배가 주인공이 되어 코믹한 액션을 펼치는 소위 '조폭'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하고, 평론가들이 좋다고 평한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 : 그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들어 경제나 정치, 사회상이 무척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인지 영화를 고를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그저 한두 시간이라도 단순히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대중들이 영화를 예술로서가 아니라 오락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폭' 영화의 흥행 성공이 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그런데 '조폭'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우리 영화가 발전한 증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본질적으로 예술이라기보다 오락이 아닌가요?

평론가 : 사회자도 제가 걱정하는 관객 중 한 분이시네요. 영화란 인간의 삶을 소재로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은 가치로운가 등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예술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중들은 영화를 오락으로만 즐기려 해요. 그리고 영화계 사람들이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구요. 이걸 우리 영화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하긴 곤란하죠. 전 '조폭' 영화들은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하지만 대중들은 심각한 영화를 보기 싫어합니다. 현실도 괴로운데 영화까지 그 괴로움을 새삼 일깨워준다면 그런 영화를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평론가 : 전 '조폭'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에 음란물이 넘쳐나는 현상을 떠올립니다. 인터넷은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봐요. 그런데 대중들은 인터넷을 오락의 도구로만 이해하려 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중들도 삶을 성찰하는, 진지한 메시지가 담긴 좋은 영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메시지를 찾아 영화관 앞에 줄을 서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5. 대담에서 평론가는 조폭 영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근거는 조폭 영화가 영화의 본질인 삶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오락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조폭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대중들이 영화를 예술이 아닌 오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성행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즉 대중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인 인터넷을 오락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론가가 나쁘다고 한 영화의 흥행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6. 이 대담에서 사회자는 계속해서 평론가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영화는 오락이 아니냐, 대중들은 오락 영화를 즐기려고 한다 등의 평론가와 상반되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평론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7~12] 쓰기

7.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글'을 쓰는 것이므로 자료의 활용 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⑤의 '담배의 유해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담배 회사가 유해 성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금연을 홍보'하는 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자료의 내용과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할 때, ⑤는 흡연의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8.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종합해서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추리해야 한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는,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입는 데 비해, 부드럽고 고운 말로 대화를 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구는 ④이다.

9. (가)의 '본론 2.'에서는 가족 공동체 붕괴로 인한 문제점으로, 패륜적 범죄의 증가와 입양 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다. 그런데 (나)의 '본론 2.'에서는 사회의 안전망 상실과 인구의 감소를 말하고 있다. 그 차이는 ④의 설명처럼 충격적인 내용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나)보다는 (가)의 개요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0. (나)의 '본론 1.'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의 원인을 사회 제도의 측면과 개인 의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족 공동체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대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이 글의 핵심적인 논리의 흐름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현상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다. 그런데, ②는 이같은 논리의 흐름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이므로 부적절하다. 만일 ②처럼 가족의 해체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나)와 같은 개요의 글은 불필요하다.

11.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글을 쓰는 문제이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영탄과 기원의 어조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쾌유(快癒)를 비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①에는 영탄과 기원의 어조가 모두 나타나며, 시련을 견뎌내고 더 찬란히 피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통해 쾌유를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확인

②에는 영탄의 어조는 없으며 시구의 내용이 쾌유를 비는 것이라기보다는 용기와 지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③에는 영탄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에는 쾌유를 비는 내용이 없으며, 욕망을 줄이고 자기 수양을 먼저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에는 기원의 어

조도 없고 쾌유를 비는 의미도 없다.

12. 글을 퇴고하는 문제이다. 내용이 부분적으로 전환을 이루는 곳이므로 ㉡에는 '그리하여'보다는 '그런데'가 더 잘 어울린다.

[13-17] 정범모.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13.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개방됨으로 해서 집단 사이의 신비와 외경의 베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변질해 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 즉 위치 감각을 찾아야 한다. 즉 기존의 위치 감각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위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14. 정보 사회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보 사회라는 대상 자체가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응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② 역시 이런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유보, ③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강조, ④ 대상의 효용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⑤ 판단 불가. 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윗글과 ②의 관점은 인간의 대응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15. 여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정보 사회가 될수록 인문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인문 교육의 필요성'이다. 이 인문 교육은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정신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단의 성격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주지 문단이 아니라, 부연 문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16. ㉣의 '통찰(洞察)'은 '어떤 대상,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봄'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어떤 대상의 외부적 사실을 눈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를 지닌 '관찰(觀察)'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 그런데, ④에서는 '통찰'을 마치 '관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용법이 바르지 않다. ④의 '통찰'은 '관찰'로 바꾸어 써야 한다.

17. ㉮에서는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⑤의 타자 연습은 단순 기능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확인 - ①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의 모색, ②와 ③ 예술적 창작과 감상, 지적인 창의, ④ 도덕적인 재지향과 통찰 등과 각각 관련이 있다.

[18~21] (가) 국어의 특질　(나) 강신항, '외래어의 실태와 그 수용 대책'

18. 해방 이후 서구어계 외래어, 그 가운데에서도 영어계 외래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새말은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들어올 때 이를 가리키는 외국어의 명칭도 동시에 받아들여 쓰이게 된 것이 많은데, 최근에는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어계 외래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다.

19. '언어는 문화의 색인이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다. 이 말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색인'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색인'은 책 속의 내용·사항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목록이다. 따라서 '색인'에는 해당 책에 실려 있는 주요 내용이나 중요 사항 등이 모두 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문화의 색인이라' 함은, 언어에는 문화의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해 문화의 모든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 차용(借用) :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것.
남용(濫用) :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마구 쓰는 것.
선용(善用) :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는 것.
과용(過用) : 정도에 지나치게 쓰는 것. 또는,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혼용(混用) : 섞어서 쓰거나 어울러 쓰는 것.
오용(誤用) : 잘못 사용하는 것.
범용(汎用) :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

21. ⓐ의 '인명과 지명'은 중국식 한자어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있던 것들이다. 반면,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고, ⓒ'유학'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다. ⓓ'근대화의 물결'과 ⓔ'현대식 교육'은 개화기 이후에 서구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22~26] 김정한, 「수라도」

22.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수라도의 발단 부분이다. 인물들의 성격을 주로 제시하고 있지, 인물들 간의 갈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3. 이 작품의 주인공 가야 부인은 허씨 집에서 위로 2대와 아래로 2대 사이에 위치하는 중심 인물로 가정을 이끌어 가며, 시대적으로도 완고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 걸쳐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 여인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기울어져 가는 양반집의 맏며느리로서 가문과 시부모, 남편,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교적 사회의 전형적 모습을 뛰어넘는 면모를 지닌다. 당시 양반 가문의 아녀자들과는 달리 매우 근면하며 진취성과 과단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의 격동기의 삶을 산 가야 부인은 한국의 전통적 여인의 모습인 현모양처형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모습도 보여 주는 바람직한 한국 여인상에 해당한다.
①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② 김동인, 「감자」
③ 채만식, 「치숙」
④ 최인훈, 「광장」
⑤ 박경리, 「토지」

24. ㉠의 '파르스름한'은 원래 '파랗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색채어이지만,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는 색채어의 의미는 거의 없어지고, '성품이 서릿발같이 매운', '굳센 기상과 절개가 있는'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
① 새빨간 거짓말 :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
② 시퍼렇게 살아 있다 :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말
③ 새까맣게 잊다 :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다.
④ 누렇게 뜨다 : 오래 앓거나 굶주려서, 안색이 누렇게 변하다. 매우 난처한 일을 당해 어쩔 줄을 모르고, 안색이 누렇게 변하다.
⑤ 하얗게 새우다 : (주로 '하얗게'의 꼴로 쓰여) '사뭇 뜬눈으로 지새다'

25. ㉮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된 이후 일본의 동양척식회사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그들의 논밭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오봉 선생에게 이런 상황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못마땅하다. 그래서 구두덜거리며 어딘가로 핑 떠나기가 일쑤이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세상을 등진 듯 새침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오봉 선생은 일제 강점기 현실이 매우 슬프고 불만스러우며 대단히 한탄스러울 것이다. 이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땅을 빼앗기고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슬퍼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한탄하는 ②이다.

①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②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③ 윤동주, <십자가> ④ 유치환, <생명의 서> ⑤ 천상병, <귀천(歸天)>

26. 'ⓐ 분이의 징조 할배 = ⓒ (오봉 선생) 당신 = ⓓ (가야 부인의) 시아버님 = ⓔ (가야 부인이 부를 때) 아부이'이다. 반면 ⓑ는 '오봉선생의 아버지'로 분이의 고조 할배이며, 가야 부인의 시할아버지이다.

[27~31] 강명관, '풍속화란 무엇인가'

27. 여섯째 문단의 '조선 사회가 양반 관료 사회인 만큼 양반들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주류는 이미 양반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별감, 포교, 나장, 기생, 뚜쟁이 할미까지 도시의 온갖 인간들이 등장한다. 풍속화를 통하여 우리는 양반이 아닌 인간들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다.'를 볼 때 ②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둘째 문단, ③과 ④는 셋째 문단, ⑤는 여섯째 문단에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28. ㉠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그림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림의 전면을 차지하는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더욱 그렇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 전쟁을 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듣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은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를 볼 때, '인간을 그림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린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9. ⓐ는 '일상을 사는 인간을 재현하기 위해 그린' 풍속화를, ⓑ는 '의례적, 정치적, 도덕적 관념의 선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그린'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 고려 시대의 불화, 조선 시대의 <빈풍칠월도>, <경직도>, <삼강행실도> 등의 그림을 가리킨 말이다.

30. <보기>에서의 '그림에 대한 연구'는 풍속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풍속을 읽는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필자는 풍속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관점을 지문에 적용하여 풍속화를 감상한다면, 풍속화에 담겨 있는 일상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사회 현실 등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1. 지문에서 필자는 풍속화의 개념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 그림'으로 규정하였다. 선지로 제시된 그림 중, 이에 부합하는 것은 ①이다.

[32~36] 한완상, '문제 의식이란 무엇인가'

32. ①은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는 세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③은 마지막 문단에서, ④는 두 번째 문단의 끝에서, ⑤는 네 번째 문단에서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글 전체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문제 의식을 지니고 사는 것, 즉 일상의 세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통찰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좌우명은 ②이다.

①은 초지일관(初志一貫: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의 자세를, ③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를, ④는 인내를, ⑤는 노력을 강조하는 좌우명이다.

34. ①, ②, ③, ④는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더럽고 잘못된 허위 의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이 안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올바른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35. 문제 의식은 지식인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므로 이것이 없는 지식인은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에는 '그 신분이나 지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 결여된 존재'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학자의 핵심적인 자질은 '연구열', '탐구열' 등이지 '융통성'이 아니므로 ②는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회의(懷疑)의 의미는 '의심을 품음'이다. 참고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의미의 어휘는 '후회(後悔)'이다.

[37~41] 작자 미상, 「박씨전」

37. 박씨 부인은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왕비는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⑤의 내용은 윗글로부터 잘못 추리한 내용이다.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 내용으로 작자가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38. <보기>의 글은 소설 전개의 필연성에 대한 내용이다. 즉, 소설은 철저하게 인과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윗글을 감상하면 박씨 부인이 용골대에게 의주로 가서 임경업 장군을 만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더군다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윗글 이후의 사건 전개에서는 반드시 이를 밝혀 주어야 인과 관계에 의한 전개가 될 수 있다.

39. <보기>의 연표에서 보면 윗글은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인조가 항복한 1637년 1월 전후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임경업, 이시백, 용골대 등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소설 전개의 편의상 볼모로 끌려가는 시기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씨 부인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것은 당대 조선 사회가 남성 우위의 사회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40. <보기>에서 판타지 문학의 특징으로 든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초자연적 존재나 불가사의한 현상을 다루고, 기괴한 장면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율적이고 기괴한 내용을 담은 작품,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작품, 신화적 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에서 백성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움직인다는 것은 과장에 의한 표현으로 판타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41. 골대는 처음에는 기세를 올리나 박씨 부인의 조화를 보고는 곧 기세가 꺾여, 오히려 박씨 부인에게 살길을 열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여유만만하고 느긋하게 행동한다는 유유자적(悠悠自適)은 골대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42~46] 오영진, 「맹 진사 댁 경사」

42.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죄를 숨기려고 한 짓이 도리어 죄를 드러내고 맒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갑분이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숨기려 하는 행동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다.

43. 맹 진사는 참봉에게 갑분이의 혼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귓속말로 한다. 묘책을 들은 참봉은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라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참봉이 혼사 문제로 착잡해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갑분이가 입분이에게 "네가 가려무나!~그렇게 좋거든."이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맹 진사는 "옳지!" 하며 묘책을 떠올린 것이다. 즉, 갑분이의 말처럼 입분이를 대신 시집 보내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맹 진사가 참봉에게 귓속말로 한 내용은 ③이 된다.

45. 노랭이 맹 진사는 머슴인 삼돌이에게 술값을 주며 나가서 마음껏 놀라 하고, 참한 색시도 골라 장가도 보내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입분이를 좋아하는 삼돌이가 있으면, 입분이를 갑분이 대신 시집 보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46. 갑분이는 김미언이 절뚝발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입분이는 김미언이 병신이더라도 사랑이 소중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47~50] 이국봉, '황금 분할'

47. 윗글은 황금 분할의 유래와 그것이 적용된 역사적 사례를 들고, 이어서 이에 대해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황금 분할이 인간에게 안정감과 조화를 느끼게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 분할이 조각, 회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다는 것은 일치하는 정보이다.

48. 윗글에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황금 분할의 특징처럼 자신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전체의 더 큰 형태에 융화되는 삶을 영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현재 살아 있다고 가정하면 아마 그들은 개성을 신장시키면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49. 황금 분할로 이루어진 물건은 0.618의 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선지들에서 찾아보면 이에 어울리는 것은 ③밖에 없다.

50. 황금 분할은 주어진 선분에서 (a+b) : b = b : a의 등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말로 설명하면 전체(a+b)에 대한 큰 부분(b)의 비율이 큰 부분(b)에 대한 작은 부분(a)의 비율이 같게 되는 관계로 풀이할 수 있다.

[51-55]
(가)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나) 김광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다) 이성부. 「벼」

51. (가)에서는 문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를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사랑의 삶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에서는 현대 물질 문명을 표상하는 자동차가 지니고 있는 편리성과 속도감에 길들여져, 이웃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각의 메시지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다)는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벼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52. ⓐ는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는 작가가 주목한 현실 세계가 작품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①은 작품이 창작된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②작품과 독자의 관계, ③작품의 내재적 의미, ④ 작품의 내재적 의미, ⑤작가와 작품의 관계

53. ㉮는 '가로수,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애기를 업은 여인'과 같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대상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교통 순경과 신호등'의 눈치만 살피며 달려간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은 버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기억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므로 의미 구조가 달라졌다.

54. (다)의 마지막 연은 비록 벼는 피를 흘리며 베어지지만, 자기 희생을 통한 '넓디넓은 사랑'에 만족하며 조용히 쓰러진다는 내용이다.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는 벼로 상징되는 민중들의,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벼를 수확하는 장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55. ㉠의 '번지'는 새로운 물질 문명을 의미하고, ㉡의 '번지'는 이전의 인간적인 삶을 의미한다. 비둘기는 ㉠때문에, ㉡을 잃어가고 있다. (나)의 '자동차'와 ' 버스(지하철)'가 이런 관계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여기서는 자가용의 의미)'를 새로 장만하면서, 이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멀리하게 된다.

[56~60] 정철, 「관동별곡」

56. 작중 화자가,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던 궁예 임금의 다 무너져 내린 대궐터에서 느낀 것은 흥망성쇠의 무상함이다.

57. 작중 화자는 임금이 관찰사직을 제수하자 성은에 감격해하고 있다. 서두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강호에 묻혀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 것은 단지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다. 만일 작중 화자가 진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너무나 감격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에 귀의해야만 인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

58. ㉠은 생략을 통한 압축적 표현으로 속도감 있게 사건을 전개한 구절이다. ②에서도 화자가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쳐나오게 된 과정을 간추려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59. ㉡에는 '天텬地디 삼기실 제 自ᄌᆞ然연이 되연마ᄂᆞᆫ'과 대를 이루는 구절이 들어와야 한다. 이 구절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정도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이제 와 보게 되니 저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조물주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는 줄을 알게 되었구나.'의 뜻을 지니고 있는 ③과 대를 이루고 있다.

60. ⓒ에서의 '서호 옛 주인'은 송나라때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서호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임포를 지칭한 말로서, 은근히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자연에 묻혀 신선처럼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